

홈페이지는 정보시대 포교창구

스님, 불자들 사이에도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사이버 법당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불교정보센터, 사이버 템플이 서서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 비하면 불교 홈페이지의 숫자는 10분의 1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이번 기회에 우리 불자들도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에 접속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속해야 한다.

국제불교연맹(www.buddhism.org)에서는 홈페이지 공간을 무료로 불자들에게 무제한 제공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방명록과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 불교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네띠앙(www.netian.com)은 회원에게 20MB의 홈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부여한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만들기 ①

국제불교연맹 등 무료계정 제공 동영상 자료 사이트 활용해볼만

제작 방법도 운영하고 있는데 초보자용과 여러페이지 구성용으로 나눠 쉽게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 코리아 뮤직넷(www.koreamusic.net/cgi-bin/homepage)은 음악에 관한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10MB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불교음악에 대한 서버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곳에서 만드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방명록에 따라 추가공간을 지원해 준다. CGI서버 코리아(www.cgiserver.net)는 회원들에게 무료 방명록 게시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메일과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해 준다. 트라이포드(www.tripod.co.kr)는 초보네트즌을 위한 단계별 홈페이지 만들기과 파워네트즌을 위한 홈페이지 만들기 코너를 제공하며 회원에게 20MB의 홈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부여한다. 홈페이지

구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메일도 준다.

홈페이지 자체제작 사이트인 미투투(www.me2u2.co.kr)도 최근 등장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안내 순서에 따라 마우스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면 기본적인 사양을 갖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기본사양은 개성사 소개, 홈페이지 설명, 즐겨찾기, 관련사이트 연결, 갤러리, 제품이나 하는 일 소개, 게시판, 공지사항, 방명록, 전자우편 보내기 등 13개 가운데 6개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양한 동식물 사람 문양 캐릭터를 갖다 쓸 수도 있다.

계정을 주는 사이트에서 제작 방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



다. 초보자들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모웹에디터(www.namoweb.com) 같은 프로그램에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다.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무료기능판을 사용할 수도 있다. '경만의 집' (user.yongsan.co.kr/cgi-win/jump.cgi?ID=233)을 방문하면 홈페이지에 필요한 움직이는 그림 파일들을 다운 받아 쓸 수 있다. '경만의 집 홈페이지' (user.yongsan.co.kr/cgi-win/jump.cgi?ID=402)에는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언어인 HTML배우기부터 카운터 방명록 게시판 달기, 페인트샵·포도샵 등 그림프로그

인터넷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구태회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원무부장)

B형!

오늘이 대한(大寒) 하루전인데 제모습을 찾아서 그려진 길 이 귀가 일 정도로 춥다. 귀를 감싸며 길을 걷다보니 문득 해인사 원당암(願堂庵)에 있으면서 큰 절로 논강(論講)하러 가던 일이 생각납니다. 벌써 33년 전 일인데...

나는 서울에 살지만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주차공간이 넓지 않으므로 병원의 책임자로서 운전해야겠다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길을 걸으면서 계절마다 느끼는 감회는 남다른데가 있거든요.

B형! 그렇게 고대하던 우리 동국대 강남한방병원이 지난해 11월1일 개원하여 3개월째 접어들었다. 많은 불자 및 고객들의 신뢰로 운영이 벌써 정상궤도에 접어들었답니다.

다. 지난 성도 재일에는 철야 정진은 못했지만 틈을 내어 병원 병당을 올라가 좌선을 했습니다. 차 소리 바람소리가 뒤섞이고 시끄럽긴 하지만, 한 생각

B형!

언젠가 내가 말하듯 불심이 무엇이라고 누가 묻는다면, 지금도 나는 "임행(禪行)의 싸이 곧 불심(佛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임행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단지 그 임행이 욕망으로 기울어져 혼란을 일으킬 뿐이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결국은 불자가 아니겠어요.

21세기에는 "이럴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설파하고 신문지상에도 팔방팔방하고 있지만 나는 초세기적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라고 생각해. 인간



인간 존엄성 보장되는 사회 발원

다잡으니 그 소리가 풍경소리같이 들리기도 하여 정말 출·재가 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때요, 이 정도로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불자로서의 길이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겠지요.

B형! 일상의 생활에서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아침 4시경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고 원효사의 발심수행장을 심습합니다. 5시반경에는 조경으로 새벽을 가르칠려 정무다운 기개를 계속 키우고 있어요. 친구가 나에게 "아깝게 됐다"고 말한 뜻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지금 생활에 대해 회색을 다하고 나를 대로 불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출가시의 발원이 '대제대비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세계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도량이 청정하고 대중이 화목하고 불사가 원만성취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였다면, 지금은 한창 공부하고 있는 2남 1여 어린자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바르게 성장하여 불법의 큰 외호동량이 되도록 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 것이지요.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모든 중생의 소망인 행복추구권이 저당되는 사회라면 인터넷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정보통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출현하신 그 당시에는 엄격한 신분제도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이 고통 속에 살다가 한량한 생을 마감했겠어요. 그것을 타파하신 부처님이야말로 사회개혁의 선구자요, 인류의 최고 가치를 창출하여 현시하고 선언하신 '선상천하 유아독존'이 최고의 현상이 아니겠어요.

B형! 우리 병원에는 맨위 9층에 법당이 있는데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셨어요.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을 위하여 열 두가지의 서원을 세우셨기에 모셨는데 환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병이 금방 나을 것 같다고 해요. 우리 교직원들도 바쁜 근무시간 틈틈이 법당에 올라가 절도하고 좌선도 하고 염불도 하는 소규모 총림이지요. 오랜만에 이것저것 이야기 하다보니 좀 산만한 게 되었는데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 필경에는 함께 성불하도록 합시다. 형의 건강을 빌려.

철도청 불교대표자협 발족

10여개 법우회 참여...활동영역 확대 기대

철도청 각 지역 승무사무소의 불교법우회 임원들이 1월22일 조계종 포교원에 모여 '철도청 불교 신행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철도청 불교 신행단체 대표자 협의회는 불교연합법우회 구성을 위해 발족된 것으로 각자 활동해 오던 전국 10여개의 철도청 불교법우회가 뜻을 모아 모임을 가진 것이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협의회 연합 법우회 창립의 건 철도청

청 내 불교 신행단체 임원 연합수련회 철도청내 연합 사찰순례회 철도청내 안전운행기원 대회와 △불탄일 기념 주역사 연등 및 장엄물 설치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이날 협의회는 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4개 종단에 지도법사를 요청하고 조계종 총무원에서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 초과일역사내 등갈기 협조공문을 보

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의장은 박창식 구로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장, 수석부회장은 이경재 영주기관차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장, 간사장은 황국진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다보불자회 총무가 맡았다. 이외에 자문위원으로 이일승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다보불자회장이, 사무국장으로는 정찬연 성북승무사무소 포교사와 박창수 구로승무사무소 포교사가 각각 위촉됐다.

연합법우회가 발족되면 각 지역 철도청의 법우회 확대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MBC불교연 부석사에서 연합수련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불심을 다지고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다. 새벽3시에 일어나 아침예불을 올리고 부처님 전안에서 머리 숙여 참회했다. MBC 불교연구회(회장 유회근)가 1월22~23일 전국연합 명산 대할 순례법회를 영주 부석사에서 가졌다. (사진) 서울 대구 마산 울산 제주 안동 등 6개 방송국 불교연구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명산 대할 순례법회에서는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이 발원했다. 23일에는 인근 소수서원을 방문해 관람하는 등 문화재의 향기에도 젖어 들었다. 매일 셋째 목요일에 정거법회를 병행하는 MBC 불교연구회는 IMF 이후로 회원이 40여명이나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지만 남아있는 회원들이 뜰뜰 불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불교연구회는 연 4차례의 사찰 순례법회를 개최하는데 다음 순례법회는 4월경 봉암사로 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불심을 다지고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다. 새벽3시에 일어나 아침예불을 올리고 부처님 전안에서 머리 숙여 참회했다.

MBC 불교연구회(회장 유회근)가 1월22~23일 전국연합 명산 대할 순례법회를 영주 부석사에서 가졌다. (사진) 서울 대구 마산 울산 제주 안동 등 6개 방송국 불교연구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명산 대할 순례법회에서는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이 발원했다. 23일에는 인근 소수서원을 방문해 관람하는 등 문화재의 향기에도 젖어 들었다. 매일 셋째 목요일에 정거법회를 병행하는 MBC 불교연구회는 IMF 이후로 회원이 40여명이나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지만 남아있는 회원들이 뜰뜰 불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불교연구회는 연 4차례의 사찰 순례법회를 개최하는데 다음 순례법회는 4월경 봉암사로 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클릭! 새 홈페이지

- 보장사(http://cafe.daum.net/bojangsa) 1월20일 개설. 안양 보장사 청년회 카페. 안양 보장사 청년회 소개와 정보전달. 보다 나은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자료 모음의 장.
- 경희선불회(http://cafe.daum.net/sunbulddang) 1월21일 개설. 경희대 불교학부 선불회 동문들의 모임.
- 머무르지 않는 마음(http://cafe.daum.net/challa) 1월22일 개설. 공주대학교 불교학부의 방.
- 고창 룸비니 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24680) 1월23일 개설. 개설지는 고창의 모든 고등학생 불자들의 모임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ryang@buddhapia.com

인터뷰/의장 박창식

"올 상반기중 연합회 구성"

"철도청에 대표자협의회를 정식 활동 단체로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대전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연합법우회 발족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연합법우회가 창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 연합법우회가 뿌리를 내려야 체계적인 신행활동을 이룰 수 있지요."

철도청 불교 신행단체 대표자 협의회 의장을 맡은 박창식

회장(구로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은 앞으로 협의회 활동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현재 철도청 법우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은 거의 기관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박 의장은 법우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사관급 인사를 공문으로 위촉하려고 교섭하고 있다. 연합법우회는 1년에 한두차례 합동법회를 병행하고 초교일 행사에 같이 동참하며 공문을 띄워 사찰수련회에 임원들이라도 모두 동참



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박창식 의장은 "해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자로서 참 안 타가겠습니다. 철도청 연합법우회가 창립되고 전국적으로 연합법우회들이 많이 결성돼 불자들이 단결한다면 해볼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강지연 기자

佛紀 2544年 庚辰年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대산 부총정대 각각 승정원장 신수

중앙총회회장	혜공	총무원장	석봉
사정원장	혜승	부원장	진경
재정원장	혜광	사무실장	지정
교육원장	정봉	총무부부장	혜도
포교원장	법진	사회부장	지혜
호법원장	대안	홍보부장	지혜
수선원장	대심	포교부장	지혜
문화원장	청봉	교육부장	지혜
교리연구원장	<공석>	문화부장	지혜
		교무부장	<공석>

"새천년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정진합시다."

서울시 서대문구 흥은2동 4-8
전화 02)3216-0165~6 FAX 02)3216-0166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비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랄(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악성물질의 성분이 신랄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배가 임파의 뱃줄을 통해 모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랄(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정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비로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33세전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할도 파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매달리는 증상(○) 미심시요.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민망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뱃살이 곱고 딱딱하다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온은 실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뱃바가 심한 편이다
 - 18 담노나 감성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향방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